

發明特許協會의 創立目的과 오늘의 現實

田 峻 恒

<本會 副會長·辨理士>

① 創立目的과 背景

韓國發明特許協會는 지금부터 10年前인 1973年 10月 18日 第1次 石油波動으로 國內外經濟가 極甚한 打擊을 받고있던 어려운 時期에 社團法人 韓國特許協會(初代會長 朱耀翰)란 名稱으로 創立되었다.

그 當時까지 工業所有權 關聯團體로서 大韓發明協會와 大韓商標協會가 各各 存續하여 왔으나 一般國民이나 企業 그리고 政府에서까지도 工業所有權에 대한 關心과 認識이 낮았던 탓으로 架橋的인 役割을 해야 할 이들 團體가 財政上의 어려움으로 그 本來의 機能을 다하지 못하게 되자 韓國特許協會의 創立과 더불어 이들 團體를 吸收하게 되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우리나라가 經濟開發計劃에 의한 60年代의 成長을 바탕으로 70年代에도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技術開發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先進技術의 導入과 消化改良 그리고 特許化가 무엇보다 時急한 課題라 생각하여 이를 先導할 수 있는 名實相符한 工機所有權團體를 民間主導로서 創設하자는 氣運이 일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의 直接的인 動機는 우리나라가 模倣技術에만 依存해 오던 狀況아래서 韓日間에 懸案의 問題로 미루어오던 工業所有權 協定을 74年 1月 1日에 締結한다는 發表가 있어 이에 관한 政府의 準備作業은 물론 우리 業界의 受容態勢를 하루속히 갖추어 물밑듯이 들어올 일 본의 특허출원에 對處하려 하는데 있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背景과 政府 및 業界의 輿望에 副應하여 設立된 韓國特許協會는 우리나라의 發明振興事業을 積極促進하고 發明의 企業化를 助長하며 工業所有權에 관한 制度發展과 産學協同의 實效를 提高함으로써 産業界의 技術革新을 통한 國民經濟成長에 寄與한다는 目的아래 關聯事業을 展開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汎國民的으로 發明思想이 昂揚되고 工業所有權에 관한 認識을 높이는 데 큰 役割을 하여왔다.

돌이켜 보건데 韓國特許協會가 創立된 初期에는 一般國民은 물론 企業을 맡고있는 最高經營者들까지도 工業所有權에 대한 認識이 전혀 없어 技術開發의 前後段階에서 必須的으로 活用되어야 할 公業소유권문제를 度外視하는 傾向이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 協會는 일반에게는 發明의 重要性을 浮刻시키는 弘報活動을 펴면서 研修會, 세미나, 講演會 등을 통해 國內外的으로 惹起되었던 特許紛爭과 各企業이 體驗한 成功 및 失敗事例들을 提示하는 努力을 아끼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企業이나 發明인들이 出願에서 權利保護 및 管理를 하는데서 일어나는 隘路事項들을 制度的으로 打開하고 國內의 發明風土造成을 뒷받침 해 주어야 할 政策課題들을 政府에 建議하는 活動도 持續的으로 展開하였고 이 결과로서 많은 是正과 反映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創立 10周年을 맞이함에 있어 지난해부터 協會는 技術開發의 成敗가 곧 우리나라의 運命에 直結되고 技術革新만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強調하신 全斗煥 大統領閣下의 뜻을 받들어 韓

國發明特許協會(名譽會長 全敬煥, 會長 具滋曠)로 改稱, 우리나라의 發明風土를 振作시키고 發明의 企業化를 促進시키는데 寄與하고자 意慾의 人 再出帆을 함으로써 「發明의 날」을 復活하고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開催, 發明試作品製作支援, 常設發明品展示場設置 등 發明獎勵를 위한 새로운 事業들을 推進하면서 發展을 거듭하고 있음을 工業所有權界로서는 매우 鼓舞的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② 앞으로의 課題

이제 韓國發明特許協會는 지난 10年間의 業積과 經驗을 土臺로 우리나라의 工業所有權分野를 先導하면서 發明品 造成을 위한 여러가지 事業을 할때가 왔다고 본다.

더우기 우리나라가 技術立國을 통한 國力培養을 위해서는 新技術을 開發蓄積하여 이를 널리 企業化해서 對外競爭力을 높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切實한 만큼 國民이 發明에 대한 關心과 필요성을 가질 수 있게하고 企業과 發明人의 技術開發에 대한 支援體制를 갖추는데 注力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協會는 長期的 眼目에서 段階的으로 事業을 推進하여야 하는데 그 첫째로는 모든 國民 특히 자라나는 學生과 主婦들에게 平素 공부하며 生活하는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着想하려하는 意慾을 갖도록 弘報活動, 課外指導, 캠페인 등을 積極 퍼나가면서 優秀한 科學發明品을 全國에서 募集施賞하는 獎勵事業이 擴散, 推進되어야 하겠다.

이 事業은 經濟發展途上에서 西歐先進國, 특히 이웃 日本이 施行하여 成功한 實例인데 해를 거듭할수록 높은 水準의 아이디어와 發明品이 쏟아져 나와 產業技術發展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다.

둘째는 企業發明을 創出할 수 있는 雰圍氣 造成과 發明된 新技術을 生産, 販賣, 輸出등에 戰略化하는 經營體制를 하루속히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最高經營者의 工業所有權에 대한 認識을 높히는데 力點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協會에서는 最高經營者들을 對象으

로 한 工業所有權세미나, 講演會, 슬라이드放映 등 多角的인 周知活動을 어나감으로써 企業의 技術開發投資와 發明研究의 活性化를 위한 經營者의 參與意慾을 한층 더 높여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세째, 發明振興 및 獎勵事業의 活性化方案이다 현재까지는 「發明의 날」을 復活하여 發明思想을 昂揚鼓吹시키기 위한 紀念行事와 優秀發明品展示會, 優秀發明試作品補助金支援, 發明獎勵館設置運營, 海外展示會參加支援등 여러가지 關聯事業을 함으로써 發明人의 士氣振作과 發明品의 企業化를 促進시키는데 큰 役割을 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今後에는 무엇보다 發明品의 企業化를 위한 政府의 財政支援(發明振興基金造成), 關聯機關인 技術開發(株), 開發投資(株), 中小企業振興公團, 信用保證基金에서의 支援등은 물론 大企業에서의 投資까지도 連結해줄 수 있는 特許流通促進을 위한 活動이 더 切實하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政府의 豫算確保 및 支援, 業界의 肯定的인 反應, 關聯支援機關의 規定緩和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解決되어야 하겠지만 協會는 與件造成을 위한 積極的인 活動과 努力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는 앞에서도 言及했듯이 兒童, 學生들에게 發明思想을 注入시키기 위한 發明教育和 實習을 課內外에서 두루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大學科目, 國家考試科目등에 必須 또는 選擇으로 編成되도록 文教當局과 不斷한 協議를 거치는 活動이 要望된다.

끝으로 企業 및 發明人의 國內外出願 및 權利保護, 特許權活用등에 關連되는 關係法令 및 制度를 改善할 수 있도록 政府當局에 積極 建議하여 이들의 隘路點을 打開하는데 盡力함은 물론 既存 法令의 整備나 死文化된 法令의 復活(發明保護法등)에도 힘을 기우려 企業界나 發明界의 實情과 意見이 充分히 反映되도록 하는 努力 또한 期待된다.

아무쪼록 이제 年輪이 10을 헤아리게 된 發明特許協會가 우리의 指向하는 바 80年代 先進祖國建設에 礎石이 되어 永遠한 發展을 거듭하면서 眞正한 意味의 工業所有權保護機關으로서의 所任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